

4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운영사례 분석

권 계 순

대구광역시립 효목도서관 관장

zzagoi@edunavi.kr

목차

- I. 서론
- II.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의의 및 도입
- III. 대구광역시 북스타트 운영 실태
 - 1. 대구광역시 북스타트 운영과정
 - 2. 자원봉사자 활용
 - 3. 북스타트 프로그램
 - 4. 북스타트 안내 및 가입
 - 5. 북스타트 플러스 시범사업
- IV. 참가자 및 가입자의 만족도 및 의견
- V. 결론 및 제언

I. 서론

지난 2007년 대구 전체가 북스타트에 가입했다라고 할 만큼 10개 공공도서관에서 동시에 북스타트 운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다른 기관과의 협약, 협조 체제로 지역내 영유아대상자가 가까운 곳 어디에서나 북스타트에 가입하여 그림책을 선물로 받고, 각종 북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북스타트가 시작한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현재 북스타트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대구지역 공공도서관의 영유아 이용자도 많이 늘어 일부도서관에서는 대출가능연령을 대폭 하향조정하여 대출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북스타트는 아기와 더불어 온가족을, 시민을 책 가까이 모으는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북스타트의 성과보다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시행착오, 운영내용, 개선책을 중심으로 언급하여 앞으로 도시단위에서 대규모로 시작하고자 하는 지역이나 개별기관에서 도입하고자 하더라도 미리 검토해야할 사항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운영에 참고할 수 있으면 하는 취지의 보고이다.

II.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의의 및 도입

북스타트는 1992년 영국 Wendy Cooling의 제안으로 시작된 독서증진 운동으로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그림책이 든 책꾸러미를 선물하며 아기가 책과 친밀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양육방법이다.

북스타트를 통해 아기가 책을 매개로 양육자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인간적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양육한 결과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에 고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스타트는 아기와 부모의 친밀도를 높이고 책을 삶, 생활의 한 부분으로 끌어들이는 점에서 양육에 좋은 방법이며 지역사회가 북스타트의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므로써 사회의 육아지원운동이기도 하다. 또한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어 지역사회의 문화복지를 키우는 역할도 한다.

무엇보다 북스타트는 자원봉사영역의 확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주부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육아방법을 나누는 역할로 진업주부의 긍지를 높이며 봉사의지로 자신의 능력을 타인에게 베풀고 북스타트 혜택을 받은 엄마들도 뒤이어 베풀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사회속의 인간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 북스타트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 이웃에 무심한 요즘사회에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일 것이다.

우리나라 북스타트는 2003년 4월 서울 중랑구에서 북스타트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북스타트 한국 위원회의 적극적 역할로 2008년 현재 북스타트는 60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북스타트 플러스는 18개 기관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스타트는 다른 지역의 북스타트와는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북스타트는 주로 지역사회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개별도서관에서 도입·추진하여 주변으로 확산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대구광역시의 예산지원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주관으로 산하 10개 공공도서관에서 북스타트를 동시에 도입·운영하여, 대구시민 전체가 보다 쉽게 북스타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된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북스타트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책 읽는 도시, 책 읽는 시민 만들기 운동으로 “Book Morning Daegu!”라는 슬로건아래 아침독서 10분 운동을 학교에서 직장까지 확산, 정착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취학아동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아침독서10분 운동으로 일생을 통해 책과 더불어 생활하도록 하는 시민독서운동추진에 있어 영유아 독서습관 형성 없이는 아이들의 독서생활이 자리 잡기가 몹시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독서교육을 뿌리내리기 위해 영·유아에 대한 대구시의 협조,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태어나는 아기가 북스타트, 북스타트 플러스를 거쳐 북스타트 보물상자로 이어지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으로 독서생활의 분위기를 익힌 후 초·중등 교육을 받으며 독서습관을 형성하여, 평생을 통해 독서를 생활화 하여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Ⅲ. 대구광역시 북스타트 운영 실태

1. 대구광역시 북스타트 운영과정

타지역과는 다르게 대구지역의 북스타트는 대구교육청으로부터 대구북스타트운동추진을 위한 소요예산과약(시설개선예산)공문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자세한 추진일정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2006년 12월 시설경비가 배부되면서, 개별도서관에서는 시설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개별도서관에서는 바닥난방시설(전기판넬), 소음방지시설(흡음제, 2중창), 영유아 수유코너설치, 용변시설(기저귀교환대, 유아변기) 및 유모차보관대를 마련하는 등의 시설공사를 하였으며, 일부도서관에서는 유아침대를 설치하거나, 영유아 열람공간

〈표 1〉 대구광역시 북스타트 추진 일정

일 자	추진 내용
2006. 11. 13.	대구북스타트운동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파악
2006. 12. 18.	시설경비 배부(총2억-도서관별 15,000-25,000천원 정도)
2006. 12. 31.	시설공사 계획 수립
2007. 01. 22.- 25.	시설공사 실시
2007. 01. 30.	담당자 협의회
2007. 02. 09.	선진지 견학(진해 기적의 도서관, 울산지역 도서관)
2007. 03. 27.	2007년 북스타트 운영비 배부
2007. 04. 08.- 30.	책꾸러미 물품신청 및 꾸러미 준비
2007. 04. 19.	북스타트 계획 수립
2007. 04. 23.	북스타트 선포식(대구광역시교육청)
2007. 04.	북스타트에 대한 대 시민 홍보(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개별도서관)
2007. 04.	북스타트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2007. 05. 04.	북스타트 데이(북스타트 가입, 프로그램 시작)
2007. 07. 18.	관할구역내 작은도서관과 협약체결(동부도서관-한들마을도서관)
2007. 08. 10.	관할구역내 보건소와 북스타트 협약체결(동부도서관-동부보건소)
2007. 08.	북스타트 플러스 시범사업 신청(수성도서관)
2007. 09. 17.	북스타트 플러스 시범사업 선포식(수성도서관)
2007. 09. 19.- 10. 05.(5회)	찾아가는 북스타트 진행(수성도서관)
2007. 09. 28.	관할구역내 보건소와 북스타트 협약체결(수성도서관-수성구보건소)
2007. 10. 04.	북스타트플러스 가입종료(수성도서관)
2007. 12. 21.	북스타트 가입종료(수성도서관)
2007. 12. 31.	2007년 북스타트 운동 결산보고

자체를 확장, 혹은 새로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공사이후의 대구 공공도서관 시설 규모는 〈표 2〉와 같다.

〈표 2〉 대구 공공도서관 시설규모

도서관명	영유아실크기㎡	비고
남부도서관	48.00	
달성도서관	24.00	
대봉도서관	23.00	
동부도서관	37.00	
두류도서관	17.20	
북부도서관	24.70	
서부도서관	47.61	77.97
중앙도서관	37.00	
수성도서관	50.00	51.84
학생문화센터	40.00	

각 도서관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금 다르기는 했으나 수성도서관의 경우 2007년 1월 22일(월)부터 1월 25일(목)까지의 4일간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환경개선공사와 동시에 2007년 1월 북스타트 추진계획을 전달받고 구체적인 전개상황에 대한 구상 및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진해기적의 도서관과 울산지역 북스타트를 진행한 도서관들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추진방법, 문제점, 프로그램, 시설 등을 둘러보며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선진지 견학을 했다.

이후 담당자 협의회 실무협의를 통해 북스타트 가입대상자, 가입확인 서류, 홍보물 제작, 홍보활동,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과 합의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2007년에도 2007 북스타트 운영비 총 2억이 각도서관별로 배부되었다. 대구시의 2006년도 0-2세 영유아 인구수를 기준할 때 운영비 등 소요비용을 포함 1인 1꾸러미 당 예산을 2만원 정도 책정하여 10,000명을 최소대상으로 잡고 예산이 배부된 것이다. 각 도서관은 배부액에 맞추어 2007년 4월 중 북스타트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배부용 책꾸러미 물품 1차 신청을 하였고, 2007년 4월 24일 오후 3시 대구 북스타트 선포식을 대구 교육청에서 가지면서 해당일 전후로 언론, 방송을 통해 북스타트의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4월말 각 도서관에서 북스타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구성하고 프로그램 참가자모집을 완료하였다.

또한 4월중 도서관별 프로그램홍보와 가입안내보도 등 연일 신문, 방송에서 북스타트를 다루어 대 시민 홍보가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참가자 모집 및 북스타트 가입홍보를 위하여 보도자료와 행정기관, 협조기관(소아과, 산부인과)에 포스터, 팸플릿, 협조공문 등의 자료를 배부하고 지역소식지에도 보도자료를 실는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그리하여 5월 4일 북스타트 데이를 기점으로, 각 도서관별로 북스타트 가입과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동부도서관이 관할구역 내 작은도서관인 한들마을도서관과 북스타트관련 협약을 맺기 시작하여 연이어 동구보건소와도 협약을 맺으면서, 북스타트와 관련된 업무를 타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게 되었다.

2007년 8월에 수성도서관에서는 북스타트 플러스 시범사업 신청하여, 9월 17일 북스타트 플러스 시범사업 선포식을 갖게 되었다. 수성도서관에서는 북스타트 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5회에 걸쳐 “찾아가는 북스타트”를 진행하였으며, 관할구역내 수성구보건소와 북스타트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진행하였다.

2. 자원봉사자 활용

가. 자원봉사자의 모집

북스타트 준비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자원봉사자 확보부분이었고, 진행함에 있어서도

대우조건에 있어 곤란한 부분이 많았다. 대구지역은 전체적으로 도서관 자원봉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성인의 도서관 봉사는 활성화된 소수의 학교도서관에서 학부모 도우미가 활동하는 정도였다. 그나마 공공도서관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기관으로 일회성인 학생자원봉사자 활동이 이루어지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도서관은 홍보활동을 통해 북스타트자원봉사자모집 노력을 하였으나 생소한 용어에 관심을 보일뿐 자원봉사의지를 보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결국 충분한 자원봉사자 확보에 실패한 개별 도서관에서는 북스타트 담당자를 통해 대구교육청에 현 상황을 알리고 교육청주관으로 교육청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와 단체 접촉으로 자원봉사의 의지가 있는 단체를 북스타트자원봉사자로 확보하여 각 도서관별로 배정하여 자원봉사자 문제를 해결하였다.

한우리 독서지도사모임과 대구독서치료회 등에서 북스타트의 취지에 응해 동참의사를 밝혀오며 따라 자원봉사자 확보는 가능했지만 도서관별 배정이라는 벽에 또다시 부딪혔다. 외곽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 주차가 힘든 도서관으로 배정받지 않기 위해 단체자원봉사자들 간에 서로 신경전이 있었고, 배정 이후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관 담당자는 자원봉사자를 위로하는 노력도 해야 했다.

교육청 내에서 선포식 이전에 자원봉사자 및 담당자 교육이 한차례 있었으며, 선포식 이후 도서관별 자원봉사자교육은 촉박한 일정으로 북스타트를 시작한 직후인 5월 7일 수성도서관에서 7개 도서관 자원봉사자가 함께 북스타트코리아의 지원으로 제천 기적의 도서관 담당사서와 자원봉사자를 통한 북스타트 실연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에 임하게 되었다.

나. 자원봉사자의 대우

북스타트예산 내 자원봉사자 실비가 도서관별로 약간씩의 차이도 있어 봉사자 수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도서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보답을 바라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자원봉사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도서관이 정해진 상황이었으며, 게다가 같은 활동에 대해 각도서관별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수준이 차이가 있어 차별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은 담당자들에게 동일한 대우를 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사실상 수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북스타트데이 이외에도 북스타트 꾸러미를 준비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위해 모자열람실 환경정비를 해야 하는 등의 관련업무가 많았음에도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얻어 업무를 추진해온 도서관은 극 소수여서 이런 관련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부분이 아쉬웠다.

다. 자원봉사자 교육

수성도서관의 경우 시각장애인실 운영으로 녹음봉사자 영역이 구축되어 있었고 평생교육강좌를 통한 전문자원봉사자도 구성되어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 중 그나마 가장 좋은 상황이었다. 수성도서관은 도서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였다.

“수성도서관 책고리이야기봉사회”는 도서관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애들아 이야기 들려줄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모임이다. 연중 화요일 오후 3시에 5-7세 정도의 모자열람실이용자를 대상으로 재미난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주고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책읽기의 재미를 느끼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자원봉사모임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야기를 통한 독서교육” 수강자 중 자원봉사 의지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열의를 가지고 “애들아 이야기 들려줄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북스타트프로그램의 책놀이 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협조를 구했다. 그리고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중 한 분이 서울지역 북스타트 진행시 자원봉사자교육을 담당하신 경험이 있어, 수성도서관 책고리이야기봉사회의 북스타트프로그램 진행을 돕기 위해 “북스타트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교육”을 담당해 주었다.

북스타트프로그램은 6개월 영아부터 대상이 되므로 5세 전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스토리위주의 기법과는 달리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고 동작꺼리의 활용도 틀리는 부분이 많아 단기간 집중교육은 아주 열성적으로 이루어졌다. 초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가자들의 반응 살피기에 급급했으나 진행회수가 거듭됨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참가자를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연말에는(2007. 12. 14.) 의성도서관이 북스타트 선포식에 북스타트 시연을 위해 초청을 해왔고 고심끝에 수락하여 참가한 적이 있다. 타지역에서 시연한 경험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북스타트활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들은 말로만 듣던 농촌지역의 다문화상황을 접하고는 대상에 따라 자료선정이나 수업진행의 다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북스타트자원봉사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올해 북스타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료를 선정,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자원봉사자 교육

차시	교육내용	활동하기
1차시	*주제: “아기와 함께 전래동요를” *참고자료: 도리도리 짝자꿍(보림) 외	• 열기: 유아들의 특성, 발달단계 이해하기 - 스킨쉽 - 자장가 - 알콩달콩
2차시	*주제: 흥내내기, 소리의 리듬 즐기기 (의성어, 의태어, 운률, 노래) *참고자료: 누구야 누구(보리)	• 말놀이 게임(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등) - 꼬리따기 노래 - 어휘를 늘려 주는 노래 - 입 운동을 시켜 주는 노래 - 동물 흥내 내기

3차시	<p>*주제: 나, 가족, 사랑 튼튼 쑥쑥 내 몸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p> <p>*참고자료: 아기오리 열두 마리는 너무 많아 (길벗어린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사랑을 느끼고 자신을 알 수 있는 책 - 사회활동을 돕는 놀이 - 소꿉놀이 - 씨름놀이
4차시	<p>*주제: 주위를 둘러 보아요 / (과일,채소별레) 버릇, 습관들이기</p> <p>*참고도서: 어디 있나요(사계절)</p>	<p>*전래동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물타령/나무타령/방귀타령 - 우는 아이 약 올리기 - 흥내쟁이 놀리기 - 고자질쟁이 놀리기 - 장사꾼을 놀리는 노래

수성도서관은 독서치료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너에는 독서치료자료를 비치하고 자료의 활용을 위해 독서치료를 활용한 상담을 진행해 왔다. 활동하는 독서치료사는 수성도서관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한 독서치료” 강좌를 수강한 후 구성된 단체로 대부분이 독서치료사 자격 소지자로 자원봉사형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북스타트 안내가 상담이나 독서치료경험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책의 활용방법 안내는 물론 어머니들의 육아스트레스에 대한 조언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북스타트 가입안내 협조를 구했다. “아름독서치료회” 회원은 책꾸러미배부와 북스타트 취지등을 설명,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찾아가는 북스타트”를 진행할때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3. 북스타트 프로그램

도서관별로 진행해온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보면 책 관련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있고 마사지나 요가 등의 신체활동, 음악, 미술활동 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각 활동을 분리하여 개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곳도 있고, 통합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도서관도 있으며, 부모교육을 단기 혹은 특강 형태로 운영한 도서관도 많다. 그리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오픈 수업으로 도서관이용자모두에게 개방된 프로그램도 있었다. <표 4>는 2007년에 실시한 수성도서관의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다.

<표 4> 수성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운영기간	참가대상	프로그램구성
엄마랑 아가랑 책이랑 1기	2007. 5. 매주 금요일 10:30-11:30(4차시)	6-12개월 유아와 보호자 1명 15팀	책놀이, 베이비마사지, 뮤직스토리
엄마랑 아가랑 책이랑 2기	2007. 6. 매주 금요일 10:30-11:30(4차시)		
엄마랑 아가랑 책이랑 3기	2007. 9. 매주 금요일 10:30-11:30(4차시)		

엄마랑 아가랑 책이랑 4기	2007. 10. 매주 금요일 10:00-11:00(1단계) 10:30-11:30(3단계) 11:30-12:30(2단계)(4차시)	1단계 6-12개월 2단계 13-24개월 3단계 25-48개월 유아와 보호자 1명 각 15팀	책놀이, 베이비마사지, 뮤직스토리 / 책놀이, 놀이미술, 뮤직스토리
엄마랑 아가랑 책이랑 5기	2007. 11. 매주 금요일 10:00-11:00(1단계) 10:00-11:00(3단계) 11:30-12:30(2단계)(4차시)		
엄마랑 아가랑 책이랑 6기	2007. 12. 매주 금요일 10:00-11:00(1단계) 10:00-11:00(3단계) 11:30-12:30(2단계)(4차시)		
워킹맘을 위한 엄마랑 아가랑 책이랑	2007. 12. 매주 토요일 10:00-11:00(2단계) 11:30-12:30(3단계)(4차시)	2단계 13-24개월 3단계 25-48개월 유아와 보호자 1명 각 15팀	책놀이, 놀이미술, 뮤직스토리

여러 가지 항의가 끊이지 않는 속에서도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북스타트의 힘겨움을 한번에 덜어줄 정도였다.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 나도 이제부터 도서관을 이용하겠다, 북스타트혜택을 받게되어서 정말 행운이다.” 등의 말과 함께 진심어린 인사를 건넸다.

4. 북스타트 안내 및 가입

북스타트 대상은 연초 기준 24개월 미만의 대구시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대구시 전역에서 가입을 받으므로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즉 지정된 예산으로 최대 혜택을 주기위해 1인 1꾸러미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영유아의 주소확인과 모자보건수첩에 가입확인을 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리고 북스타트데이는 매주 금요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자관사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면서 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하거나 보호자 주소확인으로 간소화하는 등 기준서류를 다양화하게 되었다. 연말에는 각 도서관별 북스타트 가입자 수는 계획한 10,000명을 초과하였다.

홍보효과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5월에 시작한 북스타트는 조금씩 가입자가 늘다가 7월이 되면서 가입자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획기적인 홍보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할 구역내에서 도서관과 원거리가입자가 많지 않음에 주목하였다.

농촌지역과는 달리 교통문제 등으로 도서관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적다고 생각했지만 북스타트대상자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사업주체가 도서관이라고 반드시 도서관내에서 진행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 “찾아가는 북스타트”를 기획했다.

진행할 장소와 홍보물을 게시할 장소를 섭외하고 북스타트 가입을 함께 진행해줄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구한 후 진행했다. 4개처 5일간의 행사진행으로 북스타트 250명 가입, 북스타트플러스 130명 가입의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대도시에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홍보성 이벤트

로 활용할 만 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리고 해당 도서관 담당자만이 해야한다는 고정관념에서도 탈피할 필요가 있었다. 동부도서관에서는 7월 18일 동구내의 작은도서관인 한들마을 도서관과 제일먼저 도서관업무관련 협약을 맺어 상호지원, 협력하며 북스타트 가입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8월 10일에는 동구보건소와의 협약으로 북스타트운동의 가입활성화와 보건전문인력을 통한 교육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수성도서관도 9월 28일 수성구 보건소와 북스타트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10월 말까지 보건소를 통해 북스타트에 450명이 가입하였다. 타도서관도 협약은 아니더라도 해당구 보건소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출장가입을 한다거나 업무협조를 받아 가입자 증대의 노력을 하였다. 타기관과의 공동진행, 협조의 엄청난 성과에 대해 경험하였고 앞으로 다양한 업무추진은 연관기관과의 협조도 고려하여야함을 깨달았다.

만 2세 이후에는 어린이집에 다니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지만 북스타트연령(6개월 이후 24개월미만)은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드물고 무료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이 없었으므로 양육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북스타트프로그램 1기 모집에 북스타트의 생소함 때문에 참가자모집에 고심했으나 담당자의 생각과 달리 참가자모집이 쉽게 끝났고 이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항의)에 양해를 구해야했다.

대부분도서관은 모집기간 중 선착순으로 프로그램참가자를 결정했고 수성도서관의 경우는 일정기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접수 후 공개추첨으로 참가자를 결정했다. 선착순모집의 경우 아기보호자가 아침부터 줄을 서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또한 추첨의 경우는 본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운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질타를 받았고, 전화나 인터넷 접수에만 의존해서는 공간상 소수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쉽게 불참하는 문제로 선뜻 양육자 편의만 위한 결정도 쉽지 않았다. 2008년 현재는 방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착순 접수, 운영하고 있다.

5. 북스타트 플러스 시범사업

북스타트연령이 너무 낮아 도서관에서 진행하기에는 24개월이후 48개월 유아가 더 적합하리라는 생각을 하던 8월에, 북스타트코리아에서 북스타트플러스 시범사업 신청접수를 받았다. 수성도서관은 대구지역 북스타트플러스 시범사업 주체로 선정되었고 9월 17일 선포식을 가졌다. 북스타트플러스 진행을 위한 프로그램실 리모델링 공사를 8월중 마치고, 9월초에는 배부물품 준비와 선포식 참석자 선정을 하였다. 외부인사를 초대하고 북스타트플러스 대상자는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았다.

선포식은 어린이의 축제 형식으로 식전·후 행사를 마련하였으며 행사장으로 들어오면서 북스

타트플러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였다. 아기들에게만 북스타트 혜택이 부여되는 것에 아쉬워하던 많은 유아들이 북스타트플러스선포식에 기쁘게 참여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찾아가는 북스타트” 행사를 통해 300명 대상으로 마련한 북스타트플러스사업은 10월 5일 종료되었다. 시범사업이라 소수를 대상으로 진행하다보니 소외계층을 우선대상으로 삼아 동사무소로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제한적인 홍보를 하였음에도 북스타트의 홍보효과 덕분인지 대구시 전역에서 플러스 가입자가 밀려들었다.

프로그램의 경우 대상자 상당수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교육중이어서 프로그램 수업에 참여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 북스타트 만큼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근육을 자극하는 미술활동과 책놀이, 악기 활용 등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12월에는 그동안의 이용자요구를 반영하여 토요일 프로그램 “워킹맘을 위한 엄마랑 아가랑 책이랑”을 마련하였다. 열띤 경쟁으로 참가자가 결정되었으나 맞벌이가정의 경우 모든 일이 주말에 몰려 결시자가 정규프로그램에 비해 많았으며 자원봉사자의 여건도 고려하여 이후 정규프로그램화 하지는 않았다.

북스타트플러스시범사업은 북스타트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으며, 2008년에는 대구지역에서 북스타트와 북스타트플러스를 동시에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미취학아동전체를 대상으로 북스타트보물상자시범사업을 신청·운영하고있다.

IV. 참가자 및 가입자의 만족도 및 의견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북스타트플러스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북스타트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참가자 및 북스타트 가입자에 대해 일부 개별 면담을 통하여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프로그램 참가자 및 북스타트 가입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이 조사는 개별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프로그램 내용, 가치, 강사, 시설 및 시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부록의 <설문지> 참조).

설문과 면담조사 결과, 85%정도가 ‘만족’, ‘매우만족’의 의사표현을 하였고 6개의 설문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는 답변이 나왔다. 특히 도서관에 대해 만족스럽다, 도서관에 대해 인식이 바뀌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은 봉사대상연령을 주로 취학직전 유아로 잡고 프로그램, 자료를 구성하였고, 무엇보다 도서관 시설 면에서 유아를 이용대상으로 포함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의 결과, 북스타트의 시작과 더불어 미비하나마 시설보완과 영유아 대상의 자료 확충 노력, 프로그램의 도입, 자료이용회원자격 부여 등에 대해 이용자들이 긍정적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일부 응답자들은 수준 높은 시설개선요구 등 시설과 자료, 프로그램 각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응답자들의 의견은 시설과 자료, 프로그램으로 크게 대별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설 면에서 수유시설과 영유아 화장실을 별도 독립 장소에 설치하여, 수유뿐만 아니라 간식 등을 자유롭게 먹일 수 있는 공간 확보와 일반 이용자와 달리 영유아의 소란스러운 열람 장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자료 면에서 세계명작, 외국번역자료가 많은 도서관 장서구성을 우리정서에 맞는 내용으로 교체해야한다는 의견과 입체자료, 형질자료, 등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자료를 보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프로그램에 있어 접수방법을 추천(요행)이 아닌 선착순(노력)으로 변경, 4차시 프로그램을 최소 12차시 이상으로 확대, 15팀으로 구성된 수업인원 축소, 프로그램 일자 조정, 프로그램수혜자 확대,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구성, 보다 매끄럽고 절도 있는 진행, 다양한 독후활동 경험 등의 요구들이 있었다.

수시로 파악된 이용자 요구는 즉각적으로 반영할 부분과 차후 보완할 부분으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수정하였다. 주로 프로그램과 자료에 대한 요구는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으나, 시설에 대한 요구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접수방법은 2008년도부터 선착순으로 변경하였고 직장인의 참가요구를 수용하여 토요일에 “워킹맘을 위한 엄마랑 아가랑 책이랑”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많은 도서관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노력을 통하여 부모교육, 임신부교육부터 영유아 대상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자료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자료구성도 프로그램 전용자료를 비치·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비치하였고 국내 그림책자료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시설부분의 문제는 쉽게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고 자료실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은 강좌실 개선공사를 통해 프로그램 장소를 이동함에 따라 이용자의 불만을 다소 줄일 수 있었으나 어린이실내의 모자열람실은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공간이어서 이용자들 간의 갈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제한된 강좌운영 장소와 기존 교양강좌운영 등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으로 북스타트 프로그램요구를 폭넓게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북스타트에 대한 여러 진행상황을 다른 지역의 소식으로만 접할 때는 이상적이고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다. 그리고 우리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입 후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리 원만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우선 현재 공공도서관들의 열악한 시설로는 리모델링과 환경개선공사를 거쳤지만 이용자들의 수준 높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했다. 어린이 및 성인을 위한 시설로도 많이 부족한 화장실 공간, 열람공간 등을 영유아라는 특수계층을 위한 수유공간, 유모차 보관공간,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열람공간으로 할당하기에는 개선여건조차 만들기 힘들었다. 수년전부터 건립되기 시작한 어린이전용도서관시설이 대구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에 대한 항의가 더 거세졌다.

모자열람실에서 북스타트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같은 시간에 자유로운 열람을 제한하게 되고 프로그램운영이 끝나도 영유아와 보호자간의 수업 후 활동이 연결되는 바람에 일반 이용자와 갈등도 생기고 어린이실 열람분위기도 많이 소란스러워지는 등 어린이실 운영이 더욱 힘들어졌다.

그래서 2008년에는 프로그램 전용실에서 북스타트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도서관도 생겼다. 프로그램이나 아기의 소음이 줄어 어린이실 열람분위기는 다시 나아졌으나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프로그램진행시, 혹은 전후에 모자열람실 자료를 접할 기회를 박탈한 부분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프로그램실 내에 영유아용 자료를 소량 비치·활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북스타트에 가입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부분의 양육자는 북스타트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였으나 일부 계층에서는 최근 늘어난 육아지원혜택으로 끝없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왜 북스타트 가입은 평생에 1회인지, 그림책 2권을 제공하며 아이의 독서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북스타트 취지를 설명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독서생활을 할 수 있다고 권하여도 독서지도 선생님이 주단위로 파견되는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과 비교하며 실효성 없는 운동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지역보건소에서는 두 자녀 혹은 세 자녀부터 출산지원금을 배부하거나 유축기, 유모차등 물품을 대여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유아 사교육비(독서지도사 가정방문)지원 등 여러 단체에서 육아지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북스타트의 의미전달이 빛바래지 않았나 생각도 했다.

지역민의 특성,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육아지원사업의 내용을 우선 파악하고 지원기관들의 협조 하에 사업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그 속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북스타트 가입과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방식도 시도해 볼 만하다.

도시전체가 북스타트를 도입 할 때는 준비부터 진행과정에 있어 통일성과 특색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우선 북스타트 대상과 가입확인서류를 통일할 필요도 있으며 북스타트 시작일자 결정과 홍보도 일원화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다. 10개 도서관별로 각기 포스터와 현수막, 팸플릿을 제작, 인쇄 하는 것은 담당자의 업무부담도 크지만 지역민에게 공통된 도안과 문구로 홍보하는 것에 비해 효과도 떨어지고 경제적 지출도 크다.

시의 협조로 교통량을 기준하여 구역별로 대로변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고 교육청 단위에서 북스타트협의회를 구성하고 포스터와 팸플릿 공동제작 및 보도자료를 작성 배부하는 등 홍보업무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홍보 시에는 구정소식지를 통한 홍보효과가 크므로 빠뜨리지 않고 시작일자에 맞춰 소식지에 실릴 수 있도록 사전 협조를 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단위도서관의 특색 프로그램등은 팸플릿이나 보도자료 작성 시 홍보될 수 있도록 제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홍보하는 정도로만 하여도 충분할 것 같다. 사전접수과정이 없는 개방형프로그램과 정규프로그램, 부모교육프로그램과 특강형식의 육아예방의학이나 유아교육관련 강의를 고루 마련하되 각 도서관이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의 대우조건은 통일됨이 마땅하나 도서관별 활동하고 있는 다른 분야 자원봉사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 강사의 경우도 평생교육강좌 강사에 비해 강의료가 상향 책정되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시간을 두고 조율하여야 할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영역이 프로그램과 가입안내에 국한되지 않고 자료실미화나 기타 도서관 운영협조에까지 확대되어 도서관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얻어나가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요구 중에는 개별방문학습 형태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희망과 자원봉사가 아닌 전문강사 섭외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많은 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사교육시장의 조기교육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북스타트프로그램의 구성, 책을 활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증설, 고액강사료를 지불해야하는 전문강사 섭외 등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북스타트는 책을 매개로 한 인간적인 교감이며 나눔을 위한 자원봉사와 공동육아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북스타트의 의미가 흐려지지 않도록 책을 위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가자들이 같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다른 기관과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에서 예산지원을 하지만 북스타트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부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북스타트가 시작되기 전에는 언제 하느냐, 시작해서는 프로그램 접수문의, 준비서류문의, 북스타트란 무엇인가, 어떤 책으로 두 권의 그림책이 구성되었나, 기타 북스타트 관련 문의에 대한 응대만으로 하루업무를 마치는 경우가 많다. 물품주문과 꾸러미 준비, 프로그램 구성, 자원봉사자 계획, 그 외 자료실 업무, 담당사무, 등등 모든 업무가 쌓여 가기만한다. 게다가 밀려드는 민원까지 처리해야한다. 북스타트를 시작하면서 민원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그러나 북스타트의 취지와 효과, 그리고 도서관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행해야하는 것이 사서의 몫이라고 마음을 다잡아야한다. 그리고 도서관내에서는 가능한 최대한의 인력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부 록 〉

가족문화 조성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 북스타트 플러스 -

그동안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문화 조성사업과 관련된 설문에 답변해 주시어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난에 √ 표 해주십시오.

문항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프로그램 내용이 유익하고 재미 있었다.					
2. 프로그램 참여가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다.					
3. 진행자가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였다.					
4. 프로그램 운영시간 및 환경이 적절하였다.					
5.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					
6. 다른 사람들에게 본 프로그램의 참여를 권하고 싶다.					

- 북스타트 프로그램과 관련 도서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연령대	10대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	-------	-----	-----	-----	-----	-----	-----	-------